

찬란한 모란향에 젖은 '강진의 봄'

27~28일 제15회 영랑문학제
거리극·콘서트·백일장 다채
세계모란공원 감성여행도



지난해 진행된 '영랑문학제' 공연 모습.

바야흐로 '찬란한 슬픔의 봄'을 노래한 '모란의 시인' 김영랑의 계절이다.

영랑은 순수 서정시 운동을 주도했던 남도의 대표 시인이다. 잘 다듬어진 언어로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갈고 닦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김영랑(1903~1950)이 활동하던 당대에는 '시의 춘추 시대'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뛰어난 시인들이 적지 않았다. 경상도 이상화, 충청도 한용운과 오정환, 평안도 김소월이 바로 그들이었다. 김영랑은 이들과 어깨를 겨뤄가며 자신만의 언어로 남도의 서정을 형상화했다.

특히 김영랑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본격적으로 외국문학이 유입되던 시기였다. 외국어 모방과 외국 사조가 마치 지성의 척도인 양 여겨지던 때였다. 그럼에도 그는 시류에 어랑긔하지 않고 남도의 서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열어왔다.

올해도 영랑문학제가 강진읍 영랑생가 일원에서 열린다.

강진군과 (사)영랑기념사업회는 김영랑의 시정신과 민족혼을 기리기 위해 27일부터 28일까지 제15회 영랑문학제 및 세계모란공원 감성여행을 개최한다.

축제는 김영랑이 살았던 당시 사회상을 재현한 거리극으로 서막을 연다. 이후 영랑시문학상 시상 및 축하공연과 청자 전시·판매, 모란화분 전시·판매, 차와 시의 어울림, 아나바다, 영랑시집·기념품 판매 등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진다.

첫날인 27일 오후 1시부터 북치는 동동구루무장수가 이끄는 '1930년, 다시 찾은 영랑의 봄'을 주제로 한 거리극이 펼쳐진다. 또한 옛장수와 모던보이, 일본 순사들이 행렬을 이뤄 관람객들에게 아련한 추억의 시간을 선사한다.

이어 오후 4시 영랑생가 특설무대에서 갖는

개막식에서는 올해 영랑시문학상 수상자인 고재중 시인과 영랑의 전기 동화를 쓴 강진 출신 김옥에 작가의 팬 사인회가 열린다. 남도의 대표 시인과 동화작가인 이들은 문학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사인을 한 창작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세계모란공원 감성콘서트를 비롯해 강진의 모든 사물을 꽃의 인문학으로 풀어낸 사진전과 버스킹 공연 등의 볼거리를 제공한다.

축제 이틀째인 28일에는 제15회 전국영랑백일장과 전국영랑시낭송대회가 오전 10시부터 영랑생가와 강진아트홀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관람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당일 심사 발표 및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영랑기념사업회(회장 송하훈)는 지난날 이형권·배한봉 시인이 참여한 가운데 제15회 영랑시문학상 심사를 갖고 고재중 시인의 '꽃의 권력'(문학수첩 7월)을 수상작으로 선

정, 발표했다.

심사 위원들은 "고재중은 절제된 언어 표현과 토속어 구사, 음악성을 특성으로 하는 시를 주로 창작하는 중진 시인으로서, 영랑시문학상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시인이다"며 수상자의 선정 이유를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유·스퀘어 문화관 21일 '아름다운 예술시장'

유·스퀘어 문화관이 오는 21일 유·스퀘어 2층에서 '아름다운 예술시장'을 개최한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알리고, 지역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리마켓이다.

작가들이 직접 만든 비누, 옷, 팔찌, 인테리어 소품과 예술품들을 구입할 수 있다.

예술시장에서는 누구나 셀러로 참여해 작품을 판매하거나, One Day 작업 공방을 열어 자신의 기술을 나눌 수 있다. 또한 예술시장이 열리는

날 야외광장에서 직접 공연도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작가는 유·스퀘어문화관 홈페이지(www.usquareculture.c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메일(sekmax27@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신청서는 매달 1~10일까지 받고 있다.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30분~오후 6시30분까지 열리며, 다음달 아름다운 예술시장은 5월 19일에 열린다. 문의 062-360-8436.

/전은재기자 ej6621@



최근 열린 유·스퀘어 문화관 '예술시장'.

'광주문학관 건립 얼마큼 왔나' 광주문학 봄호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문학관 건립은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논의된 뒤 2008년 관련 용역이 추진됐다. 처음 빛고을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 동구 윤립동에 건립이 추진됐다가 남구 광주공원으로, 이후 전일빌딩과 모 예식장까지 후보지로 거론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광주문학협회 동인지 2018 봄호 '광주문학'(86권·사진)이 발간됐다.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광주문학관 건립에 관한 기사'와 올해 문학관과 관련해 보도된 내용들을 소개했다. 광주시는 건립 조사용역 추진이 끝나면 내년 상반기 문학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향후 추이는 예단하기 어렵다.

다른 특집으로 제30회 광주문학상 및 제10회 올해의 작품상 수상자 초대석을 마련했다.

시 부문에 백수인 조선대 교수와 오승준 시인이, 수필 부문에 임인택 수필가가 선정됐다. 올해의 작품상에는 조민희 시조시인이 뽑혔다. 수상자들의 당선소감, 신작 시와 신작 수필, 신작 시조가 실려 있어 향후 작품의 전망을 가늠할 수 있다.

이번 호에는 광주교대 겸직 시인이 임원식 시인의 '사랑이 오는 시간'을 토대로 지상강좌를 펼친다. '사랑을 향한 궁구, 혹은 그 변증법적 응답'이라



는 주제에서 엄 시인은 "임원식 시에 나타나는 자기성찰은 세계구성원을 자신의 내부로 초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부름을 받는 대상들은 내면화를 위한 환유적 장치이며 건성을 가져오는 도구이다"라고 평한다.

이밖에 강대실·공옥 등·장민하 시인 등의 작품과 김산중·김옥중 시조시인 등의 시조가 수록돼 있다. 또한 서향숙·윤삼현·이성자 시인 등의 동시, 강은희·김대자 수필가 등의 수필도 담겨 있다.

전원범 전 광주교대 교수는 '권두언'에서 "광주문학관의 건립은 누가 주체가 되든 많은 그들고들이 연결되어 협력했을 때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2018년에는 더욱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가장 훌륭한 광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우리들의 협력이 아름답게 이뤄지기를 기원해본다"고 밝혔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창작국악그룹 '노라' 관객과 소통의 무대

오늘 빛고을국악전수관

창작국악그룹 '노라'가 '얼싸 좋네 노라 보세' 목요상설공연을 펼친다. 19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놀아보자'는 뜻을 가진 창작국악그룹 '노라'는 우리 옛 노래를 기반으로 실험정신이 담긴 이야기를 노래하기 위해 2017년 결성됐다. 전통 민요를 소재로 한 편곡과 창작활동 외에도 다양한 국악 성악 장르들을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국악그룹이다.

이번 '얼싸 좋네 노라 보세' 공연에서는 장르에 구애없이 경서도 민요, 판소리, 시조 등 다양한 창작국악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경기지방의 대표적인 민요 '경북고타령'을 시작으로 '태평가', '개타령', 창작 시조 '북천이 맑다거늘' 등을 무대에 올린다. 서도민요의 대표곡 '풍구소리', '몽금포타령', 메나리토리의 본고장 강원도의 민요 '한오백년'과 제주바다의 감성을 담은 '이 어도사나' 등 각 지방의 대표적인 민요도 준비했다.

이밖에 판소리 '흥보가'를 모티브로 한 국악가요 '제비노정기'와 팔도아리랑을 연곡으로 묶어 다양한 토리를 만나볼 수 있는 '노라리랑'까지 전통의 맛과 창작의 신선함을 함께 느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무료관람. 문의 062-350-4557.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어린이가 쓴 시집 '울챙이 발가락' 창간준비호 발간

'아이들에게 시를 돌려주자'는 취지로 어린이들이 직접 쓴 시를 담은 잡지가 나온다.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소속 교사들과 양철복출판사는 어린이시 잡지인 계간 '울챙이 발가락' 창간준비호를 펴냈다.

이 창간준비호에는 부산 해원초등학교 3학년 허시윤 어린이의 '꽃'을 비롯해 어린이들이 쓴 시 25편을 실었다.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는 "시와 노래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어린이시 운동을 시작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울챙이 발가락'을 1년에 네 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창간준비호를 시작으로 오는 6월 1호인 2018년 여름호를 펴낼 계획이다. 어린이들이 쓴 시와 그림, 어린이들이 만들어낸 빛나는 순간을 담은 사진과 교사들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넣어 꾸민다.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는 1983년 아동문학이 이오덕(1925~2003) 선생을 중심으로 전국 초·중·고교사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 연구·실천하고 있다. 44쪽, 3000원.

/연합뉴스



AromaLife

아로마라이프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 의명가

KCPR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 편안한착용감 |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발습GOOD! |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시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속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1588-2219